

가스공사,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팔 걷어... 수입사 집중관리

산자부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 참여 “수출입 규모·시기 등 조정명령”

올 겨울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 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수급 위기시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비율을 확대해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경연)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공급 축소와 미국 LNG 생산지 공급차질 등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있다.

천연가스 현물시세(JKM)는 올해 1월 4일 100만Btu(열량 단위) 당 29.4달러에서 지난 3월 7일 84.7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뒤 이달 5일 62.8달러로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스공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가운데)이 7일 서울 중구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의 9월분 가스 도매 가격(열량단위)은 Gcal당 14만4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나 상승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4배 수준이며, 2년 전보다는 4.3배에 달한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가스 도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난방용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이 다가오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는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제 수급 불안과 가격급등에 따른 요금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사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장기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을 감안해 올해보다 가스 수요를 높게 전망했다. 또 현물구매와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원료로 가격이 급등한 LNG 대신 LPG를 일부 공급해 LNG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직수입사도 겨울철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고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가스공사와 물량교환 등을 통해 국가 수급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스공사, LNG직수입사, 도시가스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사 수급 현황 및 겨울철 대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현재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을 비상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매주 국제 천연가스 시장 동향과 국내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수급 위기 발생 등 필요시엔 민간 직수입사에게 수출입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천연가스 수요절감을 위해 LPG 혼소, 산업용 연료대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등에 자발적으로 도시가스를 절감한 사용자(가정, 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겨울철 도시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필요시 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주거플랫폼 확산 등 정책지원 신속 추진”

6개팀 출전... 전원 수상 영예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1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부발전은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 4개를 포함해 도합

6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총 6개 팀을 내보낸 남부발전은 설비 고장 감소 뿐만 아니라 환경설비 최적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현장 개선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로 호응을 얻었으며, 그 결과 출전팀 전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회의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 회의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유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점검 회의이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가구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LH는 연



LH는 지난 6일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1차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내 약 3000가구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우수한 입지 확보와 특화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공급기준 수립,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법·제도적 정비사항을 짚어보고, 수요자에게 편리한 청약 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아울러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정책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LH는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

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무인환전존 오픈

인천국제공항공사(인공)는 7일 오전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위한 무인환전존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무인환전존은 현재 공항에 입점한 은행 3사(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환전ATM기기를 한곳에 모은 통합ATM부스로,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D카운터 인근 및 1층 중앙부 총 2개소로 운영된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8 | 해짐 / 18:51

9월 8일 (목)

음력 : 8월 13일

수도권 날씨

17~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무역보험 체결 한도 상향... 230조→260조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

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한도는 수출과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됐고, 향후 국회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추석연휴’ 코로나 대응 계속...원스톱진료 6000개 운영 /사진 뉴시스
- ▲ 추석 귀성길 날씨 쾌청...전국 대부분 ‘한가위 보름달’ 본다

- ▲ 최근 5년 추석연휴 화재 2299건...원인 절반은 ‘부주의’
- ▲ 추석 앞두고 서울 임대아파트서 60대 숨진 채 발견...고독사 추정



- ▲ 이정식 장관 “주52시간, 유연한 유럽처럼”...노동계 “아전인수” /사진 뉴시스
- ▲ ‘국가교육위원 2명’ 추천권 놓고 교원단체간 갈등 심화